



# 실내서 햇볕 쬐듯 ... 은은한 熱을 몸속까지 전달

‘바닥에 불을 뿜게 해 아니라 천장에서 따뜻한 열을 쬐자.’

서경화 에너지코리아 대표는 북사열을 천장에서 발생시켜 실내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기를 2005년 내놨다. 실내에서도 햇볕을 쬐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파장대가 긴 원적외선을 발생시켜 은은하면서도 따뜻한 열을 내게 했다. 바닥 난방이 힘든 사무실, 화장실, 강의실 등의 장소에서 이 제품이 주로 쓰였다. 최근엔 책상 밑에 놓고 쓸 수 있도록 개인용 히터 형태로 제작해 시장에 내놨다.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으로 선정된 ‘엘리온’이다.

◆원적외선으로 열 전달 엘리온은 사무실 개인 난방기다. 천장용 난방기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 화력을 낮추고 크기는 작게 줄인 제품이다.

난방이 잘 안 되는 책상 밑에 놓으면 다리와 발이 따뜻해진다. 열선이 빨갛게 달궈져 뜨거운 열을 내는 스토브와 달리 온기가 은은하게 몸에 전달된다.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날 위험이 적다. 발을 올려놓고 쓸 수 있을 정도다.

서 대표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파장대의 원적외선이 방출돼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 원적외선이 몸속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피부만 따뜻해지는 일반 난방기와 다르다는 얘기다.

전기료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하루 8시간을 매일 작동하면 한 달에 5000원 안팎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기에 은나노, 음이온이 발생해 항균 및 탈취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 고객은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무직 여성이나 학생, 어린이

원적외선이 따뜻한 열 발생 혈액순환·피로회복에도 효과적 달 만에 6000대 판매

의자용·맞춤형 난방기 등 소비자용 제품군 확대 나서 ‘올 매출 60억원 목표’

를 키우는 가정집과 어린이집 등이다. 서 대표는 “작년 10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 내놨는데 첫 달 만에 6000대 넘게 팔았다”고 말했다.

◆의자용 난방기 등 제품 확장 에너지코리아는 앞으로 엘리온 같은 일반 소비자 대상(B2C) 제품



서경화 에너지코리아 대표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개인용 난방기 '엘리온'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을 계속 내놓을 예정이다. 의자 위에 놓고 쓸 수 있는 ‘파스온’이란 제품을 곧 출시한다.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기다. 남성 전문선 환자나 냉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 가능하도록 변형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전기공사, 설치공사 등 전문가의 시공 없이도 클립을 박아 간단히 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면서 DIY(직접 만들기)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금 수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

은 연 15억원어치의 제품을 주로 유럽 지역에 수출 중이다. 올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중국 등으로 수출 지역을 넓히고 수출액도 20억~3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외에 나가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코리아는 인천 강화도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한다. 올해 매출 목표는 수출과 내수 합쳐 60억원으로 잡았다.

서 대표는 “바닥 난방이 불가능한 장소에선 온풍기가 아니라 우리 제품이 표준 난방방식으로 쓰이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인천=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에스엠뿌레-초미립자분무기 (062)959-1511 △에너지코리아-원적외선난방기 1600-9339 △에이팩스인텍-솔림메이LED 조명 (054)977-7667 △츄리빙-웃점리드 070-4685-2004



이영규 웰크론 회장(오른쪽)이 플랜트 설비 시공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웰크론 제공

## CJ와 손잡은 웰크론 “차세대 연료 생산설비 개발”

(바이오 에탄올)

섬유소재 및 플랜트 설비업체 웰크론이 CJ제일제당과 손잡고 바이오 에탄올 연료 생산설비 개발에 착수했다. 바이오 에탄올은 석유 등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연료다.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전 세계에서 아직 대량 생산기술을 보유한 곳은 없다.

석유 등 화석연료 대체 “친환경 분야 수요 적극 대응”

추출 기술을 이용해 생산하는 설비”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웰크론택 및 경기대 등과 공동으로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웰크론택은 웰크론이 2010년 인수한 플랜트생산설비 회사다.

바이오 에탄올은 식물에서 연료와 소재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바이오매스’ 분야다. 옥수수나 익새의 대 등 저렴한 목질계 폐기물에서 효소를 이용해 다량류 성분을 추출한다. 뽑아낸 당 성분은 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이 생산되는 원리다. 웰크론 관계자는 “식물 폐기물에서 연료를 추출하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아직 개발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성과를 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바이오매스는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집중 투자하는 연구개발 분야”라고 설명했다.

웰크론은 이 같은 성장성에 집중해 바이오매스를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정했다. 웰크론택과 또 다른 계열사인 산업용 보일러 생산업체 웰크론강원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웰크론택은 2014년 LS전선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웰크론강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플랜트 기업 에너지닉과 226억원 규모의 바이오매스 플랜트 설비 계약을 맺었다.

이 회장은 바이오매스 원천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바이오매스 기업 인수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바이오 디젤 등 친환경 분야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주 기자 onething@hankyung.com

## “만성질환, 이제 앱으로 관리하세요”

서울아산병원, 건강앱 출시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성욱)은 환자 본인이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헬스 앱(응용프로그램) ‘내 손안의 차트’ 2.0 버전을 내놨다.

2010년 개인건강관리기록 앱으로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내 손안의 차트’ 1.0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2.0 버전은 사용자 스스로 건강 관련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 국내 제약사들, 샌프란시스코 달려간 까닭은?

뉴스카페



JP모간이 주최한 콘퍼런스 1500여 헬스케어사 몰려 기술수출 협상의 최적지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올해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대거 출동해 관심을 모았다. 한미약품이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수출 협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기술력을 갖춘 제약·바이오기업이 임상시험 성과 등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노바티스 등을

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미약품을 비롯해 녹십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씨젠 등 국내 주요 업체가 참석했다. 한미약품은 임성기 회장, 이관순 사장 등 경영진이 출동했다. 13일 현지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이 사장은 글로벌 3상이 진행 중인 인성장호르몬 신약과 표적항암제 등의 임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장은 “올해 한미약품이 주력할 연구개발(R&D)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병건 녹십자홀딩스 사장은 녹십자홀딩스 산하 기업의 최근 몇 년간 주요 사업성과를 발표했다. 독감백신 지씨플루 프랜차이즈, 차세대 항암 표적치료제 ‘GC1118’, 유전자재조합 B형간염 예방백신 및 만성B형간염치료제 ‘GC1102’, 녹십자셀의 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 등 글로벌 전략 품목과 차세대 신약후보 물질을 소개하며 해외 기술수출을 타진했다. 이 사장은 “머지않아 같은 자리에서 글로벌 성과를 발표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 화염·열기 25분 이상 차단 LG하우시스, 방화피 출시

LG하우시스는 건축용 PF(페놀폼) 소재를 활용한 ‘내화 PF 방화피’를 출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방화피는 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위아래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층과 층 사이에 피 형태로 내화(耐火) 자재를 시공하는 건축공법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다. LG하우시스의 내화 PF 방화피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성능 시험 기준을 충족했다. 화염과 열기를 차단하는 내화 성능이 25분 이상 유지돼 유기성분 자체로는 유일하게 법규 충족 기준인 15분을 초과하며 안전성능을 입증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안정적 노후 연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신기후체제에 따른 유망사업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한국전력과의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보장

99kW 발전소 전경

www.kwpower.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

- 경북 군위군 잔여분 99kW 2기
- 경북 고령군 194kW 1기
- 경북 의성군 2MW 1기 / 750kW 1기
- 경북 성주군 2MW 1기
- 경북 영천시 3MW 1기

21세기 노후 연금

99kW 설치기준 약 250만원 월 수익

- 태양광 발전 예상 수익률 10% 이상
- 토지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토지 분할 등기 이전)

‘태양광발전 사업’이란?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안정성

-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 한국전력과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보장

수익성

- 투자금 대비 어떠한 금융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률
- 25년 모듈 효율 보증(30년 운영)

상시 방문 상담 가능

1644-4192

010-5110-5660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 2013-10-013028호) 한국전기공사사업회 정가공사사업회(제 대구-006733호) KYUNGWONPOWER 경원파워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64(만촌동 1331-8)